



平山申氏宗報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아세아빌딩 7층)평산신씨대종중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 pyongsan777@naver.com

출판소 033-243-2076
표창재 053-985-1330
용산단 061-363-1495
덕양서원 010-8762-7799



발행인 신철수
편집인 신금철
인쇄인 송은하



신년사 (新年辭)



[신철수 회장]

경애하는 평산신씨 종원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었던 임인년을 보내고 성장과 풍요로움을 가져온다는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70만 종원 여러분의 가정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삼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종중 회장 소임을 맡아 지나온 3년을 회고해보면, 향사 봉행 및 묘역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종중 재산관리 및 수익증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종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하며, 양심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건강한 종중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다짐과는 달리 향사봉행은 코로나로 인하여 한번도 전 종원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봉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시조 묘역관리는 묘역 내 소나무가 매년 태풍과 폭설로 20여 그루 이상이 훼손되고 있어, 대안으로 후계목을 키우기 위하여 묘목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종중의 종구가 조직이나 책임 등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회장 선거관리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상임이사님들과 대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개정 및 제정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대종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원 확보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대종중 건물 1층 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커피숍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고 수원에 빌딩을 매입하였으며, 춘천시 소재 대종중 토지를 정리한 자금으로 춘천에 빌딩 구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포서원 부지 등 잔여 토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등 대종중 수익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종중 아세아 빌딩 엘리베이터의 사용기간이 초과되어 새로 제작 설치하였으며 건물의 노후화로 옥상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누수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건물의

상하수도 및 오폐수 배관, 화장실 배관이 노후되어 전면 교체하였고, 각 층 화장실의 변기, 세면기 교체와 벽면, 바닥, 칸막이 공사를 하여 고질적인 문제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군단의 성역화사업이 많은 분들의 협조에 의해 잘 마무리 되는 듯 하였는데 지난 1982년 당시 덕양서원 원장 신대균씨가 장군단 전설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켜 대종중을 비롯한 각급 관련회의 및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장군단은 시조님의 두상이 문혀있는 단소가 아니고 순수한 전설일 뿐이라고 명확하게 잘 정리한 바, 있으나 4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켜 대종중의 결정에 의해 전해지는 뜻과 다르게 비석이 세워지는 등,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은 그 무엇보다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며 전설은 어디까지나 전설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초심을 잃지 않고 종중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울곡연구원에서 제작중인 “평산신씨 시조 장절공 도록”이 곧 완료 될 것이며 특히 시조님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시조님을 강원도 선양 인물로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대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제례정식절목, 수호절목, 묘안록, 종계안 등의 서적도 강원도 및 춘천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 신청하여 제례절차와 보유자료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제례정식절목과 춘·추향사의 제례절차를 강원도 유·무형문화재 자료로 지정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평산신씨 종원 여러분!

지난 임인년에 보내주신 후의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 맞이하는 계묘년에는 종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모든 종원이 하나되는 평산신씨대종중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라올건데 계묘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우리 대종중도 화목하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묘년 설날아침

평산신씨대종중 회장 철수(澈秀) 拜上

2023년 대중중 신년교례회



2023년 1월 4일 11시 한일옥(구 한일관) 지하 1층(서울 중구 수표로 94)에서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해 종중에 헌신하신 임원님을 모시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평산신씨 대중중 신년 교례회가 개최되었다.

신년 교례회는 대중중 명예회장, 고문, 상임이사, 각 분과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함께 시조 장절공과 선조님,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린 후, “코로나로 무거운 한해를 보냈으나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70만 중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고 특히 지난 한해 대중중에 성원해 주신 명예회장님과, 고문님, 상임이사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 임기가 3월이면 끝나는데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대중중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 갑식, 길순 명예회장님과 현재, 용수, 선철, 동진 고문님 순으로 덕담이 있었고 이웃과 나누고 덕을 베푸는 의미의 떡 킷팅 후에 문철부회장은 “계묘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넘쳐나고 건강하시며 평산신씨 대중중의 화합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하였다.

이어진 오찬을 하면서 덕담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함께 기원 하였다.

명예회장 · 고문회의 개최



2022년 12월 2일 (금) 오전 11시 대중중 회의실에서

명예회장, 고문님을 모시고 업무보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철수(澈秀) 대중중 회장은 9월 1일부로 참판공 종중 회장으로 재임 중에 새로 영입된 수철 총무국장을 소개한 후,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진행된 업무를 보고드리며, 얼굴을 한번 뵙고자 모시게 되었다고 인사하였다. 이어 총무국장이 총회 서면 결의 위임에 따른 춘천건물 구입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 대의원 등록 건, 장군단 징계처분 소송 건, 춘천 장절공 묘역 내에 국유지 도로와 전임회장(국주) 명의로 된 토지취득 건에 대한 회의 자료를 보고하였다.

회의 결과 장절공의 묘역 내에 편입된 방동리 1040번지의 국유지 576㎡와 전임회장(국주) 명의의 819-8 지번의 田 184㎡는 2023년도 도로용도 폐지 후 취득하고 전임회장 명의의 토지를 대중중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겠으며, 2022년 5월 16일 규약 개정에 따라 개정된 이후에 선임된 임원은 제례·계보위원회에서 세계(世系)를 확인하여 대중중 회장 선거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군단 소송 건에 대해 참석자 다수가 징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사면의 대상임을 지적하자 철수 회장은 신인현씨 측에서 먼저 성의를 보이면 대중중에서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덕양서원이 시조 유적지에 포함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덕양서원이 포함되면 사당인 율리사와 경백사가 우선하여 유적지로 지정되어야 한다 라고 지적하자 차후 종규 개정 시에 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정 · 부회장, 감사회의 개최



2022년 12월 7일 오전 11시 대중중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 · 부회장, 감사회의에 철수(澈秀) 회장과 문철(文澈), 현대(鉉大), 현문(鉉文), 현덕(鉉德), 용철(龍澈), 형식(亨湜) 부회장, 권채(權彩) 감사가 참석하였다.

철수(澈秀) 회장은 내년 3월에 진행될 대중중 회장 선거를 하기위한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과 선거관리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명부작성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부회장님과 감사님께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

고자 합니다.라고 회의 소집 취지를 말씀드렸다.

이어 총무국장의 회의 자료 설명 후, 먼저 임시총회에 서면결의 위임에 따른 춘천 건물 구입은 12월 14일 제 215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 결정되면 계획대로 진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상임이사회 추천 3명과 각 분과위원회 각 1명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자체에서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추진 할 것과 이와 연계하여 5월16일 이후 선임된 대중중 임원에 대한 의단입룩자 검토와 함께 대의원 명부를 일제 정비하여 진행중임을 보고하였다.

장군단 징계처분 가처분 소송 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다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이 들어와 여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번 상임이사회에서 협상팀을 구성하여 원고측과 조율하고 있는데 이를 수렴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있으며, 춘천 묘역내에 있는 국유지 도로에 대해 회장이 PPT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5년에 한번씩 춘천시에 국유지 사용을 신청하고 있는 바, 이미 우리 묘역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용도를 폐지하고 취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 종규 개정시 덕양서원 문제와 대의원 정수에 대한 논란과 상임이사로 선임 된 후, 대중중 회의와 춘천 향사 등에 전혀 관심이 없고 참석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종규나 시행규칙을 명문화해서 재제하는 방안과 대의원에 대한 위촉 또는 해촉시 각 파종중, 유적지, 시도화수회 회장께서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당부하고 또한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에 대해 여비 지급을 현실화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자고 하였다.

제215차 상임이사회 개최



제215차 상임이사회가 2022년 12월 14일(수) 11시에 상임이사 31명 중 19명이 참석하여 대중중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철수(澈秀) 대중중 회장은 개회를 선언 후,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된 한성운공파 형식(亨湜) 회장, 이상공파 성철(成澈) 회장을 소개하고, 추운 날씨에 회의가 소집되고 장군단 관계로 계획보다 열흘정도 늦게 회의가 개최되어

죄송하다는 양해를 구하고 내년도 선거 업무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던 바, 상임이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2023년도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먼저 의안 제1호 임시총회 서면 결의 위임에 따른 춘천 건물 구입 건을 상정하고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 후, 지난 제212차 상임이사회에서 춘천시 요선동 대중중 소유 토지에 신축 건물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신규 건물을 취득하기로 가결하여 취득가격이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구약에 의거 총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상정합니다 하고 찬반을 묻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의안 제2호로 선거관리위원 추천 건을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에서 선거관리 규정 제4조에 의거 총 7명으로 하되 상임이사 중에서 3명,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의원 4명으로 구성됨으로 가급적 선거 사무 경험 있고 전산 활용 능력이 있는 분으로 추천해 달라하였다.

이어 선거위원 추천 건으로 난상 토론 결과, 상임이사 중에서 부회장직과 분과위원장직을 가진 분을 제외하는 안과 규약 제4조에 근거하여 상임이사 모두를 포함하는 안을 상정하자 종규대로 하자는 분이 19명중 12명이 찬성하여 종규 안에 있는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한 후, 선거관리위원으로 형섭 제정공파종중 회장, 충북화수회장 완철, 수균 인천시 화수회장이 선출되었다.

대중중 회장은 점언해서 대의원이 새해 1월 1일부로 선거인으로 확정됨으로 대의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1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이 후 선거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의안 제3호 장군단 징계 처분 소송 협약 건을 상정하여 동하 회장의 협상단이 제출한 협약사항은 대중중에서 수용이 불가하고 상임이사들께서 의안상정 자체를 반대하여 취소 가결되었다.

기타사항으로 5월 16일 이 후, 선임된 상임이사 중에서 의단입룩이나 추정되는 분은 제례·계보위원회에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때는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이어 전국성씨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종중자산관리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에 서명해 주시고 아주신씨 분적 관련 논의사항이 진행되는 것과, 1월 4일 2013년도 계묘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오늘 회의실에 앉아 계시는 의자는 주식회사 넥스트 신봉철(사간공 34세)회장께서 50개(600만원 상당)를 기증해 주셨고, 작년 9월에 회의실에 비치된 70인치 대형 모니터와 노트북 온라인용 카메라, 마이크로 구성된 최신 시스템으로 미래교육 인프라를 기증한 (주)메드닉스 신영순(이상공 34세) 대표이사의 명찰을 제작하여 붙이고 그 분들의 고마움을 기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고 폐회를 하였다.

대종중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12월14일 개최된 제215차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 회의가 12월 19일 11시 대종중 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16일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 제4조에 의거 상임이사 중에서 선출된 형섭, 수균, 완철 3명과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된 우현, 현진, 흥현, 현화(불참)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선출된 위원은 상견례를 한 후, 대종중에서 처음 실시하는 대종중 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담론하고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관리 위원회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선거 일정과 사무실, 행정 사무에 필요한 비품 구매를 요청하고 선거 업무를 위한 선거법령, 소송사례, 판례 등을 사전숙지하여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자고 하였다.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형섭 상임이사, 부위원장 수균 상임이사, 사무국장에 완철 상임이사가 각각 선임되었다.

2022년도 3차 제례 · 계보위원회 개최



대종중 규약 개정(2022.5.16.)에 따라 5.16 이후 선임된 상임이사 세보(世譜)를 확인하여 규약 제12조의 대종중 회장 선거권을 규명하기 위한 제례 · 계보 위원회가 12월 28일 11시에 대종중 회의실에서 재적(在籍)위원 8

명중 6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회의에 앞서 대종중 회장(澈秀)은 어려운 걸음하게 하여 죄송하다 하고 대종중 족보가 1636년 익성 부원군께서 병자보 발간 이후, 8차에 걸쳐 대동보 발간 경위를 설명하고 15,16,17세기 우리의 선조들은 조선왕조의 세조가 왕위 찬탈로 훈구파와 사림파의 권력 투쟁과 봉당정치로 연산군 대의 무오사화, 갑자사화, 중종 대의 기묘사화, 명종 대의 을사사화로 관작삭탈, 호적과 가산 몰수, 숙청, 귀양, 능지처참, 부관참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로 가족은 물론 사돈팔촌까지 뿔뿔이 흩어져 각 지방으로 잠적하여 은둔의 생활로 여생을 보내고, 이어 2차에 걸쳐 6년간의 임진왜란과 후금의 2차에 걸친 침략으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백성들은 유린되고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은 물론 인질로 잡혀가는 고달픈 여생으로 당시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통신수단이 열악한 상황에서 족보를 수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은 족보 하나, 하나 세심히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하였다.

이어 문철 위원장은 오늘 상정되는 안 건은 개인의 신상 문제로 매우 애민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은 심사 숙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문화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위원장은 대상자 5명을 상정하고, 한 분 한 분에 대한 심의를 할 때마다 문화국장이 준비한 임오보(1702년) 계유보(1873년), 무술보(1958년), 병진대동보(1976년)와 관련 파보 등에서 발췌한 족보 사본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심의를 하였다. 심의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편집오류 1건과 누보로 판단되는 1건을 제외하고 3건은 정상으로 집계되었다.

결론적으로 편집오류 1건, 누보 1건을 포함한 5건 모두를 위원회 위원 전체가 이상없음으로 의결하였다.

2023년도 대종중 표창자 및 장학생 선발

- 선 발 : 표창 10명 내외, 장학생 20 명
- 접 수 : 2023년 1월 1일 ~ 1월 31일
- 표창 시상 : 2023년 정기총회(3월 예정)
- 장학생 선발 : 2023년 2월 통보
- 장학금 지급 : 2월말, 8월 중 지급
- 기타 상세한 사항
 - 대종중 홈페이지 사랑방 소식 공지사항 No 29
 - 평산신씨 종보 제195호 14, 15쪽 (2022.10.27.)
 - 대종중 표창 대상자 및 장학생 선발계획 통보 참고 (2023.01.03.)

종보 구독, 주소변경 : 02-776-6151, 6111

전자대동보 수단신청 접수현황

후반기 대종중에서 접수한 전자대동보 수단 신청 각 파별(派別) 접수현황 및 수단비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접수 인원 : 345명 2. 수단 접수비 : 14,207,000원

3. 배분 : 파종중(70%) : 9,944,900원 대종중(30%) : 4,262,100원

순위	파 별	접수일	신청자	인원	접수비	배 분		비 고
						파종중(70%)	대종중(30%)	
01	사간공파	05/18	응 철	1	2,000	1,400	600	전반기 환급금
02		06/17	현 무	4	130,000	91,000	39,000	
03		07/22	영 주	5	210,000	147,000	63,000	
04		07/26	용 섭	3	152,500	106,750	45,750	
05		07/27	성 철	4	137,500	96,250	41,250	
06		07/27	원 용	1	21,000	14,700	6,300	
07		08/16	동 린	3	90,000	63,000	27,000	
08		08/17	상 길	2	13,000	9,100	3,900	
09		08/31	기 용	1	50,000	35,000	15,000	
소 계				24	806,000	564,200	241,800	
10	현령공파	08/01	광 현	1	3,000	2,100	900	
11	밀직공파	08/12	동 민	4	114,000	79,800	34,200	
12		11/28	현 숙	27	1,220,000	854,000	366,000	
소 계				31	1,334,000	933,800	400,200	
13	진사공파	08/05	찬 균	16	599,000	419,300	179,700	
14	이상공파	08/18	상 철	2	81,000	56,700	24,300	
15	한성윤공	08/28	병 철	14	635,000	444,500	190,500	
16		08/28	승 훈	1	20,000	14,000	6,000	
소 계				15	655,000	458,500	196,500	
17	정언공파	10/20	도 현	4	100,000	70,000	30,000	
18		12/27	곽균	4	75,000	52,500	22,500	
소 계				8	175,000	122,500	52,500	
19	제정공파	08/04	현 중	67	3,053,000	2,137,100	915,900	
20		11/18	동 석	29	1,064,000	744,800	319,200	
21		11/21	기 순	146	6,160,000	4,312,000	1,848,000	
소 계				79	10,277,000	7,193,900	3,083,100	
22	문희공파	11/28	용 수	2	50,000	35,000	15,000	
23		11/28	순 철	4	227,000	158,900	68,100	
소 계				6	277,000	193,900	83,100	
총 계				345	14,207,000	9,944,900	4,262,100	

※ 수단 분배금은 각 파종중 계좌로 입금

파종중 · 화수회 소식

현령공파 종중 파조향사 봉행 및 정기총회



[호균 회장]

2022년 10월 22일(토) 화창한 날씨에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소재 단소에서 10여명이 참례하여 호균 회장이 준비한 제물을 진설하고 향사를 봉행하였다.

초헌관에 언수, 아헌관 언요, 중헌관 언기, 집례에 언국 종원을 분정하고 집



례의 홀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봉행 후 자리를 옮겨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호균 회장의 인사말에서 종원찾기에 실효성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고, 2023년도 새해에는 더 노력 할 것을 약속하면서 언기 총무의 결산보고를 끝으로 폐회하였다.

문희공 파조(諱槩) 향사 봉행



[봉식 회장]

문희공파 종중 회장(鳳湜)은 지난 10월25일(음 10월 1일) 11시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303-7 파조(派祖) 문희공(諱槩) 단(壇)에서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약식으로 제례위원들만 참석하여 제례를 봉행하였으나 규제가 완

화되면서 3년 만에 전국에서 많은 종원들께서 참례하여 2022년도(壬寅年) 향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분정은 초헌관 문경 우지종중 상무(相武), 아헌관 진천 충헌공종중 광섭(光燮), 중헌관 음성 오갑문중 재석(載錫), 집례 음성 오갑문중 동원(東元) 제례위원장, 대축 문경우지종중 지용(祉容)이 맡아 홀기에 따라 엄숙히 봉행하였다.

문희공 묘소는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광평리 유좌(酉坐)에 정경부인 선산김씨 쌍분(雙墳)으로 모셔져 있어 남북이 분단된 이후 향사를 봉행하지 못하다가 1968년 6월 종원들의 정성을 모아 하당리 현 위치에 초배(初配) 정경부인 평강채씨 묘소 좌우에 두 분의 단(壇)을 만들고 지금까지

지 매년 음력 10월 초 하루날에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봉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종원 여러분과 함께 향사를 봉행하게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피력하고 참석하신 모든 종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하였다.

이어 2022년도 결산 및 활동보고를 한 후, 제12대 문희공 종중 회장으로 봉식 종이 연임하기로 결의하고 문희공(文僖公) 영정제작 및 영정각 건립과 헌성비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음덕(陰德)을 기렸다.

이날 이간공 종중(夷簡公 宗中), 구한공 종중(龜漢公 宗中), 목사공 종중(牧使公 宗中)에서 각각 10만원씩을 헌성하였다.

또한 신성(申姓)의 고향 평산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가균(可均) 宗의 자전(自傳) 에세이 '갈망과 짚신' 이 일부 배부되어, 고향 산골에서의 어릴 적 추억, 그 시절의 시제 풍습, 공산치하에서의 생활, 월남(越南),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삶 등을 공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正言公(諱 曉)派 宗中 2022년도 時享 奉行



[문철 회장]

정언공파 종중(會長 文澈)은 지난 10월 25일(음력 10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정언공 묘소에서 70여명의 종원들이 모여 2022년도 파조 정언공 휘효(派祖 正言公 諱 曉), 16세 전직공(殿直公), 주부공(主簿公), 17세 사직서령공(社稷署令公)의 향사를 봉행(奉行)하였다.

아직 코로나 19가 완전히 멈추지 않아 전국의 종원을 다 모시지 못하고, 극히 일부만 참석하여 엄숙히 거행되었다.

정언공 향사에는 초헌관은 석규(奭圭) 부회장, 아헌관에는 언영(彦泳) 상임이사, 종헌관에는 완석(完錫) 재산관리위원, 집례는 前 대종중 제례위원장을 역임하신 흥균(興均) 상임이사, 대축은 상철(相澈) 상임이사, 진설은 삼철 상임이사가 수고해 주셨다. 또한 전직공 향사에는 언권(彦權) 감사가 초헌관을 맡고, 아헌관에는 목사공 종중의 현상(鉉尙) 宗, 종헌관에는 현(鉉) 상임이사가 수고해 주셨다.

주부공 향사에는 강균(綱均) 상임이사가 초헌관을 맡고, 아헌관에는 참의공(參議公) 孫이며 전 초등학교장이시고, 현 인천광역시 삼락회장이신 중균(重均) 宗이, 종헌관에는 광철(光澈) 宗이 수고해 주셨다.

특히 이날 종원들은 푸른 가을 하늘과 시원하고 넓고 깨끗하게 조경이 된 묘역에서 파조(派祖)의 지조(志操)와

사간공(諱 浩) 향사 봉행



[동하 회장]

사간공파종중 회장(東夏)은 2022년 10월 29일(음 10월 5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670-1에 위치한 진산재 재실 대문(大門)과 묘역(연천군 향토문화재 제15호) 좌우에 경기도 과천시 시장 계용(桂容), 경기일보 대표이

사 회장 선철, 용인 인아그룹 회장 계철, 대구경북화수회 동하 회장이 송조, 화합의 바램을 담은 화환이 진열된 가운데, 향사봉행 선포를 한 후, 강신례, 참신례, 초헌례를 시작으로 집례와 홀기에 따라 향사를 봉행했다. 공개서는 고려말 조선 초기 문신으로 1390년 고려 공양왕의 지신사(고려 밀직사의 정삼품 벼슬)가 되었으나 2년 후, 조선이 건국되면서 역성혁명에 비분을 느껴 평산에 은거하며 불사이군의 충절로 생을 마쳤다.

당일 향사는 전국 각지에서 100여명의 후손들이 참제하였으며 분정은 초헌관 동하(파종중 회장), 아헌관, 응철(매곡종중 회장), 종헌관 정철(구룡종중 회장), 도집례 동훈(동막종중), 집례 금철(가상문중), 축관 무철(남강공종중), 알자 동일(매곡종중), 진설 현구(순천공종중), 봉향 찬섭(매곡종중), 봉로 근섭(동막종중), 봉작 선철(구룡종중), 전작 화섭(취운종중), 사준 상섭(옥포종중) 宗이 분임되어 경건히 봉행하였다,

향사 봉행 후 동하 회장은 참제하신 종원들을 각 각 소개하면서 모처럼 함께하신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종

중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실 진산재의 보수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내년에는 향사를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향사 제수준비와 참제자 식사는 남강중종의 무철 宗께서 거주지 강원도 양구에서 이틀 전에 직원 3명과 재실에 입제하여 준비하고, 전일과 당일 참석한 종원들에게 정성이 가득한 식사 제공과 봉사를 하였다.

온수감공파 종중 정기총회



[상우 회장]

온수감공 종중 회장(載湜)은 2022년 12월 22일 10시 30분 충남 서천군 서천 문예의 전당 소회의실에서 종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장은 대중중 회장님을 비롯한 각계에서 보낸 화환 6개가 나란히 진열된 가운데 총무(두순) 사회로 국민의례와 시조 장절공과 온수감공(諱 淇) 파조(派祖), 선조님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렸다. 이어 회장은 인사말에서 축고 눈이 많이 와서 기동하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중 회장(澈秀)님을 비롯한 성철(成澈) 이상공 회장님, 대전, 충남 민철 화수회 회장님과 전임 승용 회장님 그리고 종원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차기 회장이 선출되면 신임회장 중심으로 화합하여 종중 발전에 기여해주시길 것을 당부하며 재임 중 여러 종원들께서 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다.

두순 총무는 우리 온수감공 종중 총회에 대중중 회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은 처음이라 말하고 대중중 회장님께 축사를 청하자, 대중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재임 중 코로나로 인해 예하 파종중과 향사에 참석을 못했는데 많은 눈이 내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여러 종원님을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 하시고 온수감공 종중은 그 동안 재식 회장님을 중심으로 종중이 화합하여 잘 운영되고 있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차기 회장님 중심으로 서로 협조하고 성원하여 온수감공 종중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하셨다. 또한 우리 평산산씨대종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염원하였다.

이어 두순 총무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전차 회의록을 낭독 후, 재식 회장은 원안대로 동의하느냐고 묻자 모두 동의하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다음은 용섭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에 이어 문섭 재무가 유인물로 재무보고를 하였다.

또한 현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식 회장이 임원 개신 건을 상정하여 회장 선출을 위한 휴정을 하고, 규약에 따라 21세 휘 준경의 후손 관동파 2명, 둔덕파 2

명, 밤골파 4명, 화산파 2명 옥산파 2명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우 종원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부회장은 규약에 따라 관동파 현극, 둔덕파 귀섭 종을 추대하고 감사에는 관동파 동훈, 용섭 종이 추대, 본손 이사에는 춘섭 종을 추대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재식 회장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기념품(타올)을 전달하고, 인근에 있는 대가식당으로 이동하여 오찬을 함께하고 두순 총무 후임으로 경섭 종을 선임했다.

이상공파 종중 향사봉행



[성철 회장]

높고 푸른 청명한 계절에 11월 3일 (음력 10월 10일)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동백산 자락, 이상사에서 고려 첨의부 찬성사 한림학사로 두문동 72현의 한분이신 이상공(貳相公) 휘 인기(諱 仁鎬)파조(派祖)와 단종 복위운동을 이

유로 면천으로 낙향하여 절의를 지키신 공의 손자이신 교리공 숙서(叔胥)와 300여 선조를 모신 이상사(貳相祠)에서 후손 50여명이 모여 향사를 봉행하였다.

향사는 집례(상균 32세)의 홀기에 따라 초헌관 인균, 아헌관 현모, 종헌관 일균, 대축 홍철 宗을 각 각 분정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분임된 소임을 다 하였다.

향사 후 선균(善均)회장은 참석하신 종원들에게 감사하다 하시고 이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여 성철 감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회장(선균)은 이임사에서 재임중 재실 건립과 공원묘지 조성에 협조해 주신 종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신임회장 중심으로 종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신임회장 성철(成澈)은 취임사에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직전회장님을 비롯하여 역대 회장님과 임원들의 업적을 계승하여 종중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고 이상공파 종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하고 종원 모두의 건승함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한다 하였다.

판사공파 정기총회 개최



[성화 회장]

제75차 2022년도 평산신씨 판사공파 정기총회가 12월 17일 11시 영덕임정대에서 개최되었다.

성수(盛壽) 회장을 비롯하여 상임이사 및 종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 개최한 불원재 신현

(申賢) 선생의 국제학술발표 추진 결과보고에 이어서 학술대회 추진 공로패 수여, 2022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와 차기 회장 및 임원개선,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보고와 중증 발전에 대한 제언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 추진을 위해 500여명의 종원을 한 자리에 초청하여 성공적 대회 개최에 헌신하신 길현 사무국장과 대외협력 업무에 남다른 열정으로 대회를 빛내는데 기여하신 영만 종원, 국제대회에 걸맞는 해외 초빙강사 등 국제담당업무에 심혈을 기울이신 재옥 종원에게 중중의 뜻을 모아 그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어서 성수 회장은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하였으며,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성화(城和)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판사공 중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중중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과 함께 모든 종원의 단합을 당부하고 사무국장 길현(吉鉉 37세) 중 후임으로 규동(圭東 36세) 중을 신임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진사공 파조 (諱 維) 향사 봉행



[표균 회장]

진사공 중중(會長 彪均)에서는 2022년 10월 25일(음 10월 1일) 경북 예천군 호명면 파조(派祖) 휘 유(諱 維)의 묘소에서 2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하여 향사를 봉행 했다.

공은 시조 장절공의 15세로 이성계가 압록강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변을 일으킴에 최영 장군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공의 부친 휘 윤공(諱 允恭)은 벼슬을 내려놓고 경북 예천군 은풍면에 소재한 은산(恩山)으로 낙향하여 두문불출 하였다.

이 시기에 윤공의 2남인 공은 이성계와 같이 동방진사(同榜進士)하였으나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자 공을 일곱 번을 불러 벼슬을 간곡히 권하였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으니 충신으로서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켰다.

2021년 11월 위드코로나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향사에 예천, 상주, 봉화, 문경, 영주 등 각 지역의 후손들이 참석하였다.

먼저 공의 부친이신 휘 윤공(諱 允恭)의 묘소에 회장, 총무가 정성들여 제물을 준비하여 엄숙하고 경건하게 향사를 봉행하고, 이어 예천읍 백전리(능골) 진사공(諱 維)의 묘소에 도착하여 향사를 봉행하였다.

향사 후 회장은 참제한 종원에 감사드리고 예천읍에 소재한 식당에 준비한 오찬을 하면서 친목과 화합의 장(場)을 다졌다.

문희공파 대사성공(大司成公) 향사 봉행



2022년 10월 26일(음 10월 2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1번지에 대사성공 휘 자승(諱 自繩 16世)의 묘역에서 향사를 봉행하였다.

공은 문희공 휘 개(諱 槩)의 자준(自準), 자승(自繩), 자형(自衡) 형제 중 차남으로 字는 장언(長彦)이며 호(號)는 동호거사(東湖居士)이다.

조선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세종의 母) 사이의 넷째 딸인 정선공주 손자인 남이장군이 공의 처남이다.

이날 분정은 현주 감사의 집례로 초헌관 재현(郡守公),

아현관 동길(判官公), 종헌관 용환(執義公) 독축 현도(將仕郎公), 좌집사 현도, 우집사 현덕 중(宗)이 각 각 소임을 맡았다.

영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아직 어려운 상황임에도 일곱 문중에서 60여명이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다섯째 판관공 후손 동길 宗과 몇 분이 참석하셨고, 셋째 숙모 공의 후손도 내년엔 참석한다는 언질이 있어 2023년 계묘(癸卯)년에는 공의 형제, 후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송조 돈목의 계기가 될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기다려진다고 하였다.

또한 산11번지 일대는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 별채 및 조림공사를 3년에 걸쳐 시행 중에 있으며 3년 후 공사가 완료되면 수십년 후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묘역이 조성되어 선조들의 평안한 안식처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화합하고 단합하자고 역설하면서 마지막으로 종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염원한다고 하였다.

종원동정

서울화수회 유적지 탐방 일환으로 청와대 관람하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5월 10일부터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어 많은 분들이 다녀갔다. 차제

에 평산신씨 서울화수회는 유적지 탐방의 일환으로 가까운 청와대 관람을 신청하고 11월 13일(일요일) 09시, 청와대에 10여명이 모여 안내원의 설명을 들었다.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30분까지 청와대 본관, 영빈관, 녹지원 상춘재가 관람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안내를 받아 입장하였다.

입장하자 청와대는 넓은 뜰에 조경이 상당히 잘 되어있고 좋은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서울의 명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1993년 철거된 옛 청와대 자리에는 청와대 구 본관 터(경무대)란 표지가 있어 지난 세월에 묻힌 청와대가 영화 필름처럼 스쳐간다.

대통령이 장관이나 수석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는 충무실을 둘러보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문구가 떠 올라 인사의 중요함을 생각하게 한다.

차관을 얻기 위해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광부들과 간호사들과 함께 가난의 서러움을 껴안고 울었던 그

시절, 일하면서 싸우자 했던 대통령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하신 위대한 업적에 존경의 마음과 역대 대통령들의 희비(喜悲)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상념에 젖어 영내를 관람하고 11시 30분에 경복궁 후문을 나와 고궁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12시 30분에 경복궁 정문을 나와 식당으로 이동하여 오찬과 환담을 겸한 휴식을 한 후 귀가하였다.

대중중 회의실 접의자 기증



(주)넥스트라에라 회장 신봉철(사간공파 34세)은 대중중 회의실 의자 50개(약 600만원 상당)를 기증해 모두 어려운 시기에 종원 여러분에게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다.

지난 12월 9일 대중중 사무실을 방문한 신 회장은 우연히 회의실 의자가 노후되어 불편함이 있어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총무국장(垂澈)과 대중중 회장(澈秀)님 간에 나누는 대화를 듣고 그 자리에서 선뜻 기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2월 14일 회의실 접의자를 구매하여 용달차로 배송하여 대중중에 보내 왔다.

대중중 사무실을 방문하신 종원님들은 느끼셨겠지만 70만 명문 대족의 대중중 사무실로서는 많이 불편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봉철 회장의 회의실 의자 기증으로 종원들의 대중중 방문 시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봉철(峰澈, 34세 思簡)회장은 일찍이 선고(先考)께서 미국 이민으로 유년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마친 후 사업체를 운영해오다 수년전 한국에 들어와 (주)넥스트라에라를 설립하여 기존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완전히 해결한 'RS-니코틴'을 이용하여 액상 전자담배를 개발, 국내 유일하게 특허를 받아 그야말로 전자담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신 회장의 先考(諱 鉉一)께서는 우리 평산신씨 문중을 위해 전남 곡성의 태안사(경내에 시조님의 단소)와 덕양서원의 전각 단청 공사비를 기증하신 분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기 전부터 문중을 위해 헌신, 봉사하셨던 분으로 신회장은 선고(先考)의 유지를 받들고 조상에 대한 경외심(敬畏心)과 송조애족(崇祖愛族)의 정신을 잊지 않고, 대중중 춘향사 종헌관, 사간공 향사 초헌관, 장군단 성역화 헌성 등 자녀들과 함께 기회 있을 때마다 종사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이들 부자간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아시아경제 편집국장 취임



정언공과 31세 범수(範秀, 53세) 宗이 지난 11월 28일 아시아경제 편집국장에 취임했다.

아버지 진영(鎭永)과 어머니 청송심오섭(靑松 沈午燮) 사이 3남 중 차남으로 출생해 서울 단국대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學士), 연세대학원(碩士)을 졸업했다.

1995년 SBS프로덕션 공채2기로 언론 생활을 시작해 2008년부터 아시아경제에서 근무해왔다. 청와대 출입기자, 산업2부장, IT부장, 건설부동산부장, 사회부장, 정치부장, 산업 부문 총괄 에디터 등을 거쳤다.

종(宗)은 정언공(諱 曉)의 현손인 19세 홍서(弘緒)의 3남 건(鍵)의 후손으로 이 때까지 선조들은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에 거주했으나 20세 代에 이르러 경기도 덕소-가평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종(宗)의 선대의 조상들은 가평지역에 거주했다.

창업학 박사 학위 취득



기일(基一) 종은 지난 8월 19일 중앙대학교에서 창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宗은 제정공과 37세손으로 아버지 기용(奇容)과 어머니 벽진 이명선(碧珍 李明先)의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인 유한산업(주)를 경영하고 있다.

宗은 종사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창원시 화수회 회장(2016 ~ 2019년)을 비롯하여 수년간 종사에 기여하였으며 마산 동부 경찰서 경찰발전위원장, 창원시 체육회 이사, 함안군 규제 개혁위원회 위원,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경남 중부) 지구 총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 지역사회에도 헌신 봉사하고 있으면서 향학의 열정으로 2018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과 창업경영전공의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20년 2월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기술 창업기업의 창업가 역량이 지속 가능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의 논문으로 2022년 8월 19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申可均]

저승에 계신 할머니 그간 기체후일양만강 하옵신지요?

문안 여쭙는 저는 할머니의 손자 가균이입니다.

할머니는 6.25전쟁으로 포성이 천지를 뒤흔들던 1950년 오동지 설달, 다시 말하면 정인년

사라눈이 “사라~사라” 내리던 먼동 틈틈에 이승을 홀연히 뜨셨습니다.

꼭아보니 60년 하고도 몇 년이 넘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니! 그 동안 무심히 있다가 갑자기 글월을 올려 뵈 낮이 없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항상 무명 수건을 쓰고 베틀에 앉자 바디질 하시거나 김을 매시던 할머니 모습이 아련합니다. 어느 겨울 밤 칼바람에 하얗게 질린 문풍지가 “파르릉~ 파르릉~” 자지러질 때 화롯불을 쪼일 때입죠. ‘심 봉사와 뽕덕어멈’의 껏맛 나게 이야기하시며 밤이나 고구마를 구워주셨습니다.

아지랑이가 아롱이고 제비가 등지를 틀 녀엔 뿔기나 찔레 순, 싱아 따위 군것 감을 꺾어주곤 하셨습니다. 그 적에 이 손자는 예닐곱 살 남짓 코흘리개로 다른 아이들처럼 뽕뽕머리로 여름엔 중의 적삼차림으로 책보를 엮매고 맨발로 학교를 다녔습지요. 그때가 었그제 같은데 비켜 갈 수 없는게 세월이라 새까맣던 이 손자머리가 성성하다 못해 호호백발입니다.

할머니이 계신 곳을 ‘극락’ 또는 ‘낙토’라고 하는 거기서도 밤새도록 씨아로 목화씨를 빼고 물레질을 하시는지요. 또 궁금한 것은 콩깍지를 태운 잿물에 겨우내 입어 때가 찌든 옷가지를 빨래방망이로 “철벌철벌” 두드려 빠시는지요. 미투리, 씨아, 물렛가락, 잿물..., 등 소소한 별것들이 언뜻거립니다.

왕고모님의 걸쭉한 말씀처럼 ‘죽어라 등골이 빠지도록 땅만 파먹던’ 때였습지요. 그래서 해마다 초봄이면 아버지는 품앗이 가래꾼들과 겨우내 얼부풀었던 논둑손질이 그 해 첫 일이었습니다. 그날 결두리로 감자범벅에 탁배기를 자신 두레패 태평소재비 칠성이 아버지의 “뽕~리리~ 뽕 리리~” 구성진 갯버들 호드기 소리가 아련합니다.

또 희미하게 떠오르는게 있습니다. 조반석죽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긴 어느 해 늦여름이었습니다. 조상님 제사상에 햅쌀 메를 올리려 풋바심한 벼를 절구에 찧고 쇠소뎅에 부침개를 부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할머니 전상서

그날 밤 음복 할 때 할아버님이 식구들에게 ‘재미… 끈기… 홍수… 꿈쩍…’ 뭐라고 하셨는데 어린 저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맞추면 “... 이 세상살이는 온 힘을 다해 끈지게 버티는 곳이다. 홍수 때마다 구르는 돌에 차이고 부딪히고 휘둘러도 꿈쩍 않는 냇가의 왕바위처럼 곳곳이 살아야 한다...”로 되새겼습니다. 거기 극락에 같이 계실 할아버님은 요즘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걱정거리 없다는 저승에서도 일감이 있어야지 그냥 노시면 무척 심심하시지 싶습니다. 제가 요즘 시쳇말로 ‘칠학년’이 넘어 팔순이여 일손을 놓고 보니 편한 게 아니라 고역입니다. 땅 일구기가 몸에 배신 할아버님은 그곳에서 벼모도 내고 잡곡 농사를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도리깨로 녹두나 콩마당질을 하고 부뚜로 티끌과 검부러기를 날려 보내는지요. 그 옛적에 가을 걷지 때는 도리깨질, 부뚜질 따위는 아무데서나 볼 수 있어서 이야깃감이나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그곳 극락정토에선 근심걱정 없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좋은 옷 입고 힘들여 걷지 않고 두둥실 떠다니거나 축지법을 쓴다 ..., 라는 설이 있는데 동서고금에 그 실증(實證)을 내댄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진실이며 사람들이 무탈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즐거울 것 같질 않습니다. 객지를 떠돈 사람이 고향 그리운 줄 알고 긴 장마 끝에 햇볕이 반갑듯 갖은 고생을 해보야 평안과 행복을 알 수 있고 죽음이 있어 삶의 존귀함을 알지 싶습니다.

할머니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승에서는 초근목피, 보릿고개라는 말은 전설 축에도 낄 수 없는 까마득한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어느 때 부터, “잘살아 보세~” 노래와 함께 신문과 방송들이 “국산품 애용! 신토불이아~!”를 목이 터지게 외쳤습지요. 그랬는데 지금 그런 소리는 쑥 들어가고 오대양 육대주의 꼬부랑글자를 붙인 상품들이 흘러넘칩니다.

‘소비가 미덕이요, 벌은 돈은 써야 한다.’고 하는 신세대들. 제가 젊은 때는 상상도 못하게 큰 돈을 벌면서도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저 역시 모자란다고 하는 사람 축으로 여축한 돈이 흠족치 않아 불만입니다. 그러나 “집 비워라. 셋돈 올려다오.” 소리 안 듣고 하루 세끼 거르지 않고 아쉽잖게 용돈 씁니다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호강에 겨운 소리입지요.

옛날 음복 할 때 할아버님의 ‘냇가에 왕바위’ 말씀은 누구나 새겨들어야 할 귀감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 딱합니다. 할머니님 오래오래 강녕하시기 바라옵니다.

*부뚜질=곡식에 섞인 티끌이나 쪽정이, 검부러기 따위를 날려 없애려고 부뚜를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일.

표균(32세世) 진사공종중 회장 작가상 수상



문학을 증진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국제펜한국본부 대구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구펜작가상 시상식이 11월18일 14시에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022년도 대구펜작가상에 응모한 3권의 시집을 심사

한 결과 신표균 시인의 시집 『일곱 번씩 일곱 번의 오늘』을 수상 시집으로 결정하였다. 수상작『납아짐의 미학』을 소개한다

납아짐의 미학

모서리가 닳아 손때 반들거리는
납아가는 것들이 억눌리기도 짓밟히기도
더러는 굵히기도하면서
나이 따라 늙지 않고 보쌈 주름 두터이
눈길 팽팽하게 잡아 당긴다.
옥척(屋脊) 대들보나
선로에 깔려 고막 잃고
침묵의 삶 일관해 온 침묵의 무게
몸에 새긴 레일의 시간 외려 결이 단단하다
느릿느릿 손금 굵은 살 두터워진 침모
반질고리 골무 깊어지는 주름에 동백기름 바르면
장롱문짝은 흰 목소리로 익어간다

☞ 195호 기획 시리즈 이어 연재

『기획 시리즈』

삶의 뿌리. 아! 아버지~

공(公)의 증조(曾祖)는 휘가 영수(永綏)요 장악첨정(掌樂僉正)이시고, 조(祖)의 휘는 거(據)요, 관이 사직(司直)이며 증(贈) 이참(吏叅)이요, 고(考)의 휘는 여순(汝恂)이고 현감(縣監)을 지내셨다.

公은 당시 혼란을 피해 백운산으로부터 아홉

개의 산맥이 동, 서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동쪽이 용의 머리와 같다하여 용두(龍頭)마을로 불려졌고 오늘날의 용두리가 되었으며, 서쪽에 있는 마을은 용의 귀언저리와 같다고 하여 용이(龍耳)마을이라고 풍수지리설에 따라 지은 이름이 오늘날의 용이동으로 1560년 이후로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460여년을 이곳에 집성촌을 이루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들로 대대로 후손들이 번성하였으나 이곳 또한 지역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어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諱 惠公 이하 11位 墓所】

공의 묘소는 금천(衿川)에 모셔져 있었으며 배(配) 진주강씨(晉州姜氏) 묘소는 평택시 동작동(서재마을)에 모셔져 있었으나 각 지역 개발로 인하여 공과 공의 자 22세 휘 득룡(得龍), 孫 23세 휘 급(笈), 曾孫 24세 휘 한규(漢奎), 高孫 25세 휘 명희(命義) 祖와 각 配位를 함께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483-4)로 11위를 천장하여 매년 음력 10월 9일에 時祭를 봉행하고 있다.



【諱 사복(思復) 묘소】

사간공과 구룡종중은 “평산신씨 문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이 명칭은 평산신씨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중 명칭으로 지역별, 계보는 구분되지 않아 종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2017년 3월 4일 총회에서 휘 혜(惠) 祖께서 입향하신 구룡동의 지역 명칭을 빌려 “사간공과 구룡종중”이라 개칭했다.

사간공과 구룡종중은 26세 사복(思復), 사진(思震), 사익(思益), 사달(思達) 공의 4형제 중 사복(思復) 公系, 사진(思震) 公系와 25세 명중(命仲)의 三男 사헌(思憲) 公系로 구룡동에 거주하고 있는 3개 系派로 구성되어 있다.



【諱 사헌(思憲) 송조당】

전통의례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는 우리전통 가정의례는 후손들에 의해 계승 차원에서 보존 시행되어 왔으나 근래에 이르러 문화와 사회구조가 바뀌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부응하며 현대식으로 수득(修得)하여 휘 혜(惠)公의 5대손이신 휘 사복(思復) 公系의 소문중은 월곡동 용소골 선산(제실)에서 매년 10월 10일에 시제(時祭)를 봉행하고, 휘 사진(思震) 公系와 사헌(思憲) 公系는 덕봉리 선산에 송조당을 건립하여 봉안하고 있다.

사간공과 구룡종중의 입향조이신 휘 혜(惠) 祖의 후손들은 조상님들을 우러러 공경하고 孝를 근본으로 서로 존중하며 웃어른을 섬기는 경노효친의 정신으로 서로 친목하고 있다. 아쉬움이 있다면 휘 거(據), 여순(汝恂) 祖의 묘소를 찾지 못함이 안타깝다.

가계(家系)의 존속(存續)을 위하여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관계를 기록한 책으로 혈통을 존중하며 집안의 계통을 계승하는 가문의 역사 책으로 집안에서는 조상 대대로 소중히 간직하고 성족(姓族) 파벌(派閥)과 문중(門中) 가승(家乘)을 구분하여 향렬(行列) 존비(尊卑)와 관련 적서(嫡庶) 등을 고증하여 수록하였다

우리의 대가족제도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누세동거(累世同居)를 본위로 가계(家系)의 영속을 중요시하고 부계의 조상승배를 존중하여 왔다.

가계의 존속을 위하여 장자상속제(長子相續制) · 양자제(養子制) · 축첩제(蓄妾制)는 부계를 중심으로 중

족(宗族)을 중시하고 송조목족(崇祖睦族)과 부창부수(夫唱婦隨)의 도덕을 숭상 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서구문물의 영향으로 개인주의, 물질 우선주의가 팽배 해지며 다복하던 가족상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새로운 세태가 강요되고 경제부흥에 전력하다보니 가족 개념이 바뀌었다. 즉 직계(直系)만 있고 방계(傍系)가 없어졌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할아버지와 손자, 아저씨와 아주머니, 조카, 질녀가 함께 살던 대가족제도의 생활은 그 자체가 산교육이었으나 도시화, 핵가족화로 맞벌이 가정에서는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고, 가계의 영속이 목적이 아니라 부부와 자녀의 단란한 가정생활이 우선이며 개인의 권리가 중요시됨으로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여 가임여성 1인당 예상 출산 수는 2022년도 1. 2분기 0.75명으로 인구 소멸사태를 발생케 하여 국가 경쟁력이 심대한 타격을 받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부부가 한 자녀도 갖지 못하니 형님, 아우가 없고, 언니, 동생이 없고 아저씨, 아주머니, 고모, 이모, 사촌이 없어지며 나홀로 자라는 자녀들이 전통적인 우리의 가계(家系)를 잇기에는 상당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서 가계를 잇기 위한 우리의 전자대동보 사업은 더욱 절실함으로 모든 종원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는 한 논객이 쓴 글을 읽어 보고 타산지석(他山之石) 삼고자 옮겨 실는다.

국가기관의 장을 지낸 고급 공무원 출신인 70대가 최근에 해마다 묘사 등이 부담이 되어서

“조상 산소를 다 파서 화장해서 강물에 뿌려 버려야 겠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은 대도시의 공립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분이 “제사 때문에 귀찮아서 못 살겠다”라고 짜증을 냈다고 한다.

최고의 식자층이라 할 수 있는 위 두사람이 조상을 대대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아 일반 사람들은 어떠할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족보(族譜)를 잘 정리해 온 전통이 있다.

족보에 위조가 있는 등 약간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혈통과 출신을 알려주는 개인의 역사인 동시에 한 집안의 역사다.

타향에서 같은 성(姓)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만 나누어 보면 어느 할아버지 자손이고, 어디서 갈라져 나왔으며, 자기와 몇 촌 간인지 알 수 있다.

유교적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행에 앞서 자기의 조상을 생각하고, 자기의 후손을 생각하곤 한다.

“내가 어떤 언행을 하면 조상들에게 욕되지 않을까? 훗날 나의 후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

로 말 한마디, 발 한걸음 옮길 때도 신중히 하고 한번 더 생각하고 돌아봤다. 우리만이 가진 뿌리깊은 마음이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런 관념이 없다.

오늘날 범죄자가 증가하고 사회가 혼란한 것은 가정에서의 교육이 충분히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후자들은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무라지만 학교가 교육하고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기본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대개 “누구 자식인지, 참 못됐다” “누구 집 자식인지, 본데없다”라고 하지, “어느 선생 제자인지 참 못됐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족보를 통해 자기가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자식인지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면, 사람이 함부로 처신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다.

집성촌을 이루어 살던 옛 시대만 해도 동네 안에서는 문밖으로만 나가도 모두가 할아버지, 아저씨, 형님, 동생, 조카 관계이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하면서 살 수가 없다.

훌륭한 조상께는 그 행적을 새긴 비석을 새기고, 학문이나 덕행이 뛰어난 조상은 후손들이 유림들과 협력하여 서원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단순히 조상의 업적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조상을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 후손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조상도 뿌리도 모른 채, 서로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현 시대는 쉽게 범죄행위를 할 수 있고, 언행을 함부로 하기도 쉽다.

조상을 존경하고 높이는 좋은 전통이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것이 안타깝다.

좋은 전통마저 다 버리는 것이 발전이고 개혁이라면 큰 착각이다.

2023년도 평산신씨 대종중 총회 및 제24대 회장 선거

○ 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11:00 ~17:00

○ 장소 :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2층)
서울 중구 명동11길 19(명동 1가 4-1)

○ 참석대상(선거권 자) : 208명
(정·부회장 및 상임이사, 대의원)

○ 피 선거권 자

대종중에서 발간한 평산신씨 대동세보(을미보)나 전자대동보에 등재되어 있는 종원이어야 하며, 의단입록이나 의단입록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종원으로 세계가 분명하여야 한다.

- 회장선거
 - 후보자 소견발표 - 투표 및 개표
 - 제24대 회장 당선인 결정
 - 부회장, 감사 선출(신임회장)
- 정기총회
 - 총회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 승인
- ※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기간, 방법.
제한 및 금지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인사

▶ 이상공파 종중 회장선임



- 申城澈(34세손)
- 1950년 3월15일 생
- 육군 소령 예편(홍천군 지역대대장)
- 해전대 부사관과 前교수
- 이상공파 감사

▶ 운수감공파 종중 회장선임



- 申相雨(35세손)
- 1938년12월 7일 생
- 장항농협이사/조합장(직.대)
- 서천.마서면 이장(8년), 서천군화수회 재무(17년)
- (전)대종중 대의이사, 운수감공파 종중 상임이사

▶ 판사공파 종중 회장선임



- 申城和(35세손)
- 1943년4월 7일 생
- 영덕군 산림조합장
- 제37대 영덕라이온스클럽 회장
- 영덕군 행정동우회 회장

2023년 1월 ~ 4월 행사 안내

- 1월 4일 : 신년교례회
- 31일 : 표창자, 장학생 접수 마감
- 2월 8일 : 장학, 상별위원회 개최
- 15일 : 결산 감사
- 22일 : 정, 부회장 및 감사회의 개최
- 3월 8일 : 상임이사회 개최
- 10일 : 덕양서원 춘향제(음2월 중정)
- 21일 : 대종중 정기총회
- 29일 : 제1차 제례·계보위원회 회의
- 4월 2일 : 승의전 향사
- 6일 : 표창제 향사, 제정공파조 향사
- 22일 : 춘천 시조 장절공 춘향대제

바로잡습니다.

종보 제195호(2022.10.27.) 2쪽

추향재 개인 헌성금

- 동석 100,000 제정공파 총무 → 제정공파 종중
- 동석 50,000 제정공파 종중 → 제정공파 총무
- 기봉 50,000 → 기봉 대사성공 감사
- 천식 50,000 → 천식 대사성공 총무

5쪽, 6쪽 용산단 헌성금

- 신정차(아현관) 300,000 → 1,000,000
- 신삼식(종현관) 100,000 → 300,000
- 신동호(화순) 50,000 → 100,000
- 신유섭(고창) 10,000 → 100,000
- 신동립(영광화수회 고문) 100,000(누락)

6쪽 모영재 향사, 헌성하신 분(누락)

- 부산, 경남화수회장(상수) 기념타울(120매)

9쪽 좌 문단, 중간 문안공 집(輯) → 집(諱)

12쪽 좌 문단(장절공 신승겸 동상)

2열 熱熱貞忠萬古楊 → 陽

8열 生死無時太祖榜 → 傍

16쪽 종보 헌성금 승훈 20,000 → 취소(오기)

원고모집

종보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선조들에 관한 글이나 종중행사, 미담, 시, 수필 등 문예작품, 건설적인 제안 등 종보190호 부터 기획시리즈 “**삶의 뿌리 아! 아버지**”를 각 문중의 세거지, 집성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연재를 시작합니다.

종보를 발간하는 것은 종중의 역사를 쓰고 전통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생생한 기록으로 남겨 질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보낼 곳

우 편 : 서울시 중구 수표로22 아세아빌딩 7층

FAX : 02)776-7990

E-mail : pyongsan777@naver.com

대종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

평신신씨대종중 홈페이지에는 평산신씨 소개, 선조유적지 등의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또 전자대동보를 열람할 수도 있으며, 족보수단(신규등재, 수정, 삭제 등)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또 대종중 행사에 대한 일정, 내용, 사진, 동영상, 공지사항

등을 볼 수가 있으며 전통문화예절에 대한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원께서는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창에 '평산신씨대종중'을 치시고 주소에 클릭.
- 전자주소 : <https://www.pyeongsan.com>
- 열람은 회원가입전이라도 가능하며 종원이 아닌 분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족보열람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안내된 계좌번호로 송금(1년 : 3,000원, 5년 : 10,000원) 하시면 됩니다.

'종원동정'란 이용 안내

대종중에서 분기마다 발행하는 종보에 종원 동정 란을 통하여 시조 장절공 후손들의 사회 활동 상황을 접수하여 등재하고 있사오니 많이 이용바랍니다.

인적사항 : 성명, 파, 세, 전화번호

방 법 : 귀감이나 모범이 되는 내용

1. 승조, 종중행사 / 2. 저명인사, 장래촉망되는 청.장년 / 3. 학위취득, 승진

보낼곳

우 편 : 서울시 중구 수표로22 아세아빌딩 7층

FAX : 02)776-7990

E-mail : pyongsan777@naver.com

종보 성금 보내주시 분 (2022.4.15. ~ 12. 31)

성금을 보내주시 종원님께 감사드리며,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개 인

성철(경기 고양 일산)	20,000	무철(강원 양구)	30,000
경철(전주 덕진구)	30,000	현국(충북 음성)	20,000
동철(부산진구 개금)	100,000	범진(서울 성북구)	20,000
영균(강원 삼척)	20,000	정섭(충남 태안 안면)	20,000
광휴(경북 영덕)	30,000	재철(경기 시흥)	30,000
동준(대구 동구)	20,000	승수(광주 용봉동)	20,000
용주(경기 성남 분당)	100,000	병영(서울 은평구)	10,000
현목(경기 화성)	30,000	용구(서울 중랑구)	20,000
현우(서울 강남구)	30,000	동욱(부산진구)	20,000
희철(서울 강남구)	100,000	현상(서울 동작구)	20,000
현식(경기 의정부)	20,000	숙조(서울 관악구)	30,000
현수(경기 의왕시)	30,000	경섭(경북 봉화)	30,000
상길(대구 달서구)	20,000	창훈(부산 금정구)	50,000
동석(부산 동래구)	50,000	현무(미국 L.A)	20,000
중경(충북 영동)	100,000	완섭(서울 구로구)	30,000
해철(대전)	20,000	진섭	100,000
대철(경기 부천)	50,000	광현(경기 남양주)	20,000

현창(청주 상당구)	30,000	동균(광주)	30,000
광섭(부산 북구)	20,000	영균(삼척)	20,000
경섭(경북 봉화)	30,000	동준(대구 수성구)	50,000
조영(창원 의창구)	100,000	동만(창원 성산구)	100,000
동준(대구 수성구)	50,000	세호(경북 봉화)	20,000
경철(서울 용산)	50,000	정철(인천 남동구)	20,000
현경(인천 연수구)	50,000	옥현(경기 광주)	20,000
현만(성남 분당구)	50,000	현수(경기 의왕)	20,000
현태(경기 양평)	50,000	주섭(경기 안산)	30,000
숙조(서울 관악구)	30,000	형철(광주 향교전교)	100,000
임금재(무명)	30,000	현재(서울 광진구)	40,000
현우(서울 도봉구)	20,000	현덕(경북 김천)	50,000
광섭(대전 중구)	20,000	태철(서울 은평구)	50,000
해섭(서울 도봉구)	30,000	현목(경기 화성)	30,000
동성(경남 창원.진해)	20,000		

파종중, 시·도 화수회

밀직공파 종중	100,000	인천시 화수회	100,000
제정공파 종중	100,000	서울화수회	150,000

소 종중

정언공파 교동종중	50,000	사간공파 해정공 종중	50,000
제정공파 울산 동상종중	50,000	문화공파 우지문중	50,000

시·군·구 화수회

영주시화수회	100,000	진주시화수회	100,000
포천시화수회	50,000	영천시화수회	100,000
해남군화수회	100,000	서울 광진구 화수회	30,000
진해시 화수회	50,000		

춘천 묘소 참배 현성

이상공파 자주봉회 (회장 현철)	300,000
----------------------	---------

총 계 : 3,600,000원

<종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파종중·시·도화수회 : 50부 년 100,000원

★ 소종중·시·군·구화수회 : 20부 년 50,000원

★ 종 원 : 1부 년 20,000원

* 종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20,000원 추가함.

종 보 성 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종중)

농 협 301-0202-9520-11 (평산신씨 대종중)

전자대동보 : 하나은행 027-766111-23504 (평산신씨 대종중)

우 리 1005-103-123259 (평산신씨 대종중)

구 독 신 청 : 02)776-6111 .776-6151

▶ 계좌 송금시 :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

謹賀新年

계묘년(癸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癸卯元朝

大宗中會長：澈秀

名譽會長：相式
顧問：鉉銖
顧問：龍水
顧問：日淳
副會長：鳳湜
副會長：東錫
副會長：龍澈
監查：權彩

密直公派會長：彦植
文僖公派會長：鳳湜
思簡公派會長：東夏
典書公派會長：東錫
進士公派會長：彪均
參判公派會長：起澈
表忠齋宗中會長：東鮮
仁川市花樹會長：壽均
忠北花樹會長：杭澈
光州全南花樹會長：相南
濟州道花樹會長：相燮

名譽會長：甲湜
顧問：鉉埰
顧問：璇澈
顧問：東振
副會長：文澈
副會長：鉉文
副會長：亨湜
監查：民澈

掌令公派會長：鉉茂
正言公派會長：文澈
溫水監公派會長：相雨
貳相公派會長：成澈
監察公派會長：海澈
郡守公派會長：權彩
德陽書院宗中會長：仁鉉
京畿道花樹會長：鉉晚
大田·忠南花樹會長：民澈
大邱·慶北花樹會長：東夏

名譽會長：吉淳
顧問：鉉德
顧問：光淳
顧問：東銀
副會長：鉉大
副會長：鉉德
副會長：芳湜
監查：鉉晚

縣令公派會長：豪均
漢城尹公派會長：亨湜
齊靖公派會長：亨燮
判事公派會長：城和
判尹公派會長：城澈
龍山壇宗中會長：鉉大
서울市花樹會長：鉉德
江原道花樹會長：龍澈
全北花樹會長：正次
釜山·慶南花樹會長：相修

[大宗中]

總務局長 垂澈 文化局長 金澈 經理部長 朴兌晞(外孫) 春川墓域管理所長 鉉澤

[代議員]

密直公派：敬熙，成煥，在哲(50生)，在澈(42生) 東煥，東旭，亨燮，東曉 縣令公派：鎬均，彦琦 文僖公派：景澈，東元，相泰，命植，鼎鉉，晚圭，永鉉，鉉根，蓮寔，圭容，祉容，基亨，龍煥，相武，東九 正言公派：鳳均，爽圭，莊均，興均，鉉鎮，相澈，鉉圭，彦權，東國，七均，承澈 漢城尹公派：桂萬，東鎮，光澈，明澈，承萬，載德，貞湜，龍澈 思簡公派：東日，龍澈，鉉官，冠燮，東坤，東國，東勳，相吉，相燮，榮燮，有燮，弘均，燾澈，東福，東雲，承澈 溫水監公派：忠湜，文湜，彦植，洪淳，東日 齊靖公派：雄均，鉉瑀，廷燮，弘淳，東天，東完，明均，根燮，東龍，東煥，鉉執，鉉大，義湜，東必，凱湜 典書公派：鉉和，鉉益，亨燮，東輝，滿鎬 貳相公派：相均，濺澈，逸均，世均，東澈 判事公派：春大，吉鉉，容斗，永壽，榮教，在鶴，佑燮，璿熙，在鳳，孝根，明鐘 進士公派：正熙，泰昇，鉉東，鉉周，東建 監察公派：香澈，東元 判尹公派：允茂，仁玉 參判公派：七均，浩澈 郡守公派：錫在，判錫 龍山壇宗中：東宇，東珍 表忠齋宗中：昌貴，東必 德陽書院宗中：光才，東坤 서울市(花)：允厦，金鉉，玉均，孝湜，五均，勝澈，熹澈，鉉植，英淳，正燮(正熱) 仁川(花)：重均，鉉，鉉淑 京畿道(花)：光鉉，永詰，佑鉉，定澈，基奉，東湜，鉉直，東澹，秀澈 江原道(花)：根澈，長淳，國澈 忠北(花)：勉淳，東源，相澈 大田·忠南(花)：基澈，東植，弘鉉，光燮 全北(花)：東熱，成湜，炳澈 光州·全南(花)：士鉉，昶日，東吉，興燮 大邱·慶北(花)：東一，相敦，鉉宗，東旭，東雨 釜山·慶南(花)：相領，原周，相圭，東述，在澈，判湜，大澈，成哲 濟州道(花)：寬一，正湜

[分科委員會]

祭禮·系譜委員會：文澈(委員長)，龍澈(富委員長) 東元，義浩，鉉睦，大秀，佑鉉，和燮
獎學·賞罰委員會：東錫(委員長)，載湜(富委員長) 長淳，白淳，鉉鎮，光燮，成澈，東建
編輯·宗規委員會：彪均(委員長)，弘鉉(富委員長) 鉉官，周澈，東基，彦琦，東完
財產管理委員會：鳳湜(委員長)，鉉德(富委員長) 在澈，鉉和，鉉珠，彦權，東天